
제47호 방송심의보고서

2019.11.15.~11.21.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최일구의 정말		
방송일자	2019. 11. 15.	시청률	0.003

【총 평】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 보완대책으로 내놓은 탄력근로제 확대방안을 놓고 노동계가 격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최일구 정말>에서 노동현안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획을 마련해 정책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제7회는 문성현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출연해 양극화 해소나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 노동현안의 문제는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풀어가야만 변화하는 시대의 새로운 노동 현안과 을 극복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구성 및 내용】

경제사회노동위원의 역할을 소개하고 경사노위 2기가 추진 중인 중점과제를 자세히 설명해 노동존중사회를 지향하는 정책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노동현안에 대한 이슈화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획이 돋보였는데,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노동계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여야의 입장차이로 관련법의 국회 의결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노동현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한 기획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컸다.

주요 쟁점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가는 노동현안, 탄력근로제 사회적 합의, 의미와 과제, 변화하는 시대의 새로운 노동현안 등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구성으로 쟁점 부각이 선명해졌다.

특히, 대담을 통해 노사의 쟁점이 잘 드러나 공론화 단초를 제공한 점도 의미가 컸다. 효율적인 생산성 등을 위해 탄력근로제에 찬성하는 기업측의 논리와 과로방지, 건강보호를 내세워 반대하는 노동계의 논리 등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중국 제조업체와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에 대한 전향적인 대응을 노동계에 촉구한 부분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임금격차, 양극화 해소 등 노동현안을 위한 솔루션으로 노사상생, 지역상생, 원청과 하청의 상생, 국민적 공론화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을 강조한 점도 설득력을 제고했으며, 같은 업무, 다른 임금’ 문제를 제기하며 임금 결정 요소는 학벌이 아닌 능력임을 강조했다.

과거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호 1순위였던 ‘대기업’일자리가 이제는 ‘전문직-공무원-공기업 다음 순위’로 밀려난 현실을 되짚어보면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4차산업혁명 도래로 인한 노동문제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살펴본 점은 의미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언급해 정책 알림이 역할을 수행한 점도 긍정적이다. 정부의 노동정책 배경과 방향 등이 언급되고 ‘지역 상생형 일자리’ 정책의 장점과 과제 등이 다뤄졌다.

프로그램	KTV 뉴스중심		
방송일자	2019. 11. 18.	시청률	0.039

【총 평】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주52시간제의 보완책 발표를 발 빠르게 살피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전달해 시의적절했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개별 정상회담 일정을 자세히 소개해 관심도를 높였다.

이 밖에 문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준비', 한 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 기존 입장 재확인 등이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

생활 뉴스로 관심을 끌만한 뉴스로는 시장 불안하면 분양가 상한제 추가, 통일부 '금강산 합의 처리' 강조, 노점 4천여 곳 도로명 주소 부여, 내일부터 2020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소식 등이 전해졌다.

특히, 우리의 보건 의료 질이 향상 돼 대장암과 위암은 치료 1위이고 암환자 생존율은 괄목할 만큼 좋아졌다는 소식과 함께 들려준 (S&NEWS)도 좋았다.

【구성 및 내용】

- '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완화'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 '특별정상회의 D-7...“아세안, 한반도 평화여정 동행”'
 - 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시아 지역언론 연합인 아시아뉴스네트워크에 기고문을 게재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세부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 '문 대통령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연쇄회담'
 - 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동안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될 정상회담 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라고 전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
- '문 대통령 일정 비우고 “국민과의 대화”준비'
- '日 수출규제 WTO 2차 양자협의 내일 개최'
-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北 성의 보여달라”'
- '시장 불안하면 분양가 상한제 추가 검토'
- '통일부 “금강산 합의처리 강조...호응 촉구”'
- '내일부터 2020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 '미세먼지 줄일 수 있다면...55.7% “전기료 인상 감수”'
- '대장암·위암 치료 1위...보건의료 질 향상'(박지선 기자)
- '공직박람회 26일 서울·다음 달 11일 광주에서 개최'
- (S&NEWS) '사라지는 술자리 회식...왜?'

프로그램	KTV 대한뉴스		
방송일자	2019. 11. 19.	시청률	0.109

【총 평】

<KTV 대한뉴스> 제353회는 <국민과의 대화> 생중계로 단축 편성되었다. 따라서 <유용화의 오늘의 눈>, <오늘의 브리핑>, <더 MORE 뉴스>와 <똑똑한 정책뉴스>등 고정코너가 방송되지 못했다. 그러나, 종합뉴스로서의 <KTV대한뉴스>의 기획성, 심층화, 다양성, 정보성은 살렸다.

주요 뉴스로 '오늘 저녁 국민과의 대화', '한미 방위비협상 결렬을 비롯해 예멘해상서 한국인 2명 억류, 차귀도 어선 화재 등이 뒤를 이어 뉴스의 속보성이 돋보였다.

이와 함께 철도파업 자제 등 국무회의 내용을 리포트 2건으로 방송하고,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위원회 관련 아이템 리포트 2개를 연이어 편집하여 깊이있게 보도한 심층성도 긍정적이었다.

【구성 및 내용】

뉴스에 이어 생방송으로 중계될 '국민과의 대화'를 다양하게 소개한 리포트가 적절했다. 당일 뉴스에 이어 곧 바로 진행될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앞두고 그 성격과 의미, 진행방식, 예상 질문과 돌발 질문, 소통과 공감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도한 리포트가 눈길을 끌었다. 또, 국민의 관심사를 다각도로 분석한 리포트가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이슈인 한미방위비협상 3차회의가 결렬된 내용을 쟁점, 이유, 배경, 한미 양측 입장, 전망 등 다각도로 분석한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미 방위비 분담 3차 회의 협상 결렬 소식은 미국측의 억측스런 요구에 대한 우리 측의 합리적 협상을 위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전달되었다. 미국측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합리적 타당성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과 협상을 위한 노력이 고스란히 잘 전달되었다.

이와 함께 대형 뉴스에 대한 속보성 보도도 돋보였는데, 예멘해상서 한국인 2명 억류, 차귀도 어선 화재 등 리포트의 연속 편집으로 뉴스의 속보성을 살렸다. 제주도 차귀도 어선 화재 소식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 및 관련 부처에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예측할 수 없는 불의 사고들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가능성을 전제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에 대한 지시 및 사고 수습이외에도 사고 예방 및 안전에 대한 국가적 지원 시스템 및 국민적 각별한 의식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깊이있는 보도로 심층성을 강화한 부분도 긍정적이다. 철도파업 자제 등 국무회의 내용을 리포트 2건으로 방송하고,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위원회 관련 아이템 리포트 2개를 연이어 편집하여 보도함으로써 심층성을 높였다.

KTV 국민방송이 2019 올해의 SNS '대상'을 수상했다는 아이টে들도 방송돼 KTV 자사 홍보는 물론 수용자들의 자긍심을 높였다.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19. 11. 21.	시청률	0.075

【총 평】

<특특 사이다 경제> 164회에서 다룬 핵심 주제는 “10월 고용률 23년 만에 최고-고용 개선 지속 방안”이었다. 그 밖의 경제이슈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경제 분야 총평은?”을, ‘알뜰신잡’에서는 “자동차 과태료 vs 범칙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오늘 코너 구성은 기존의 ‘정책 톡 돈이 톡’ 코너에서 ‘알뜰신잡’ 코너로 변경되었다.

국내 고용지표가 고용률, 취업자 수 증가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등 양적인 성장은 두드러지나 질적인 성장이 동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용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방안과 국내 일자리 현황의 현주소를 집중적으로 소개해주었다. 특히 국내 산업구조의 재편과 미래산업의 확대에 의한 반대급부로 기존 국내의 중요한 산업군이었던 제조업, 건설업 등의 약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구성 및 내용】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출연하여 “10월 고용률 23년 만에 최고-고용 개선 지속 방안”과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경제 분야 총평은?”에 대한 도움말을 주었다.

주요 이슈 “10월 고용률 23년 만에 최고-고용 개선 지속 방안”에서 다룬 내용은 고용률에 대한 체감지수 낮은 이유와 놓치고 간 것들은 무엇인지 또 보완할 것은 무엇인지, 근본적인 대책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오늘 방송 아이템 세 가지 모두 문제의 사안을 들여다보는 관점이 차별화된 기획 구성이었다. 10월 취업자 수 41만 여명 증가와 고용률 역대 최고라는 통계청 발표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호뭇함을 준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MC와 전문 패널은 정부 정책 띄우기에 머물지 않고 시청자들이 궁금했던 문제를 냉철하게 들여다보았다.

박연미 MC와 최배근 교수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연구해야 한다는 점, 임시방편적인 대응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 제조업에 종사하는 40대들의 지속되는 고용 부진 돌파구는 무엇인지, 고졸에도 취업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는 등 과거와 다른 정책 개발 및 산학 연구 책임과제 필요성을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산업기술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언급만 했지, 어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지를 언급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경제&이슈에서는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와 관련하여 그 속에 담긴 경제 분야 총평과 정부의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한 이슈를 다뤘다. 알뜰신잡 꼭지에서는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과태료, 범칙금 정보를 소개해주었는데,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언급된, 스쿨존이라고도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위반보다 범칙금 및 과태료, 벌점이 종과되는 부분 등이 강조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